기니 비사우 소식지 2021-5 호
이근욱 조영희 선교사
e-mail: kwleesss@gmail.com
phone: 010 5583 9743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현지교회와 리더 세우기
(행 1:8)

샬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2 년 동안이나 장기화되는 코로나 19 팬데믹 가운데서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나누면서 2021 년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소식지에서 무슬림들이 인구의 대다수인 기니 비사우에서 적응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를 나누었는데 이번 소식지는 좀 다른 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개월 전, 아주 작은 땅을 빌려 대나무로 엮은 벽으로 교실 네 개를 만들어 동네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 초등학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UNICEF 자료에 의한 기니 비사우의 교육 현황은 초등학교 연령에 있는 아이들(만 6-11 세)중 34%가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의 14%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실정입니다. 일년 중 학교에 가는 200 일 중 92 일 (46%)은 교사들의 데모로 수업이 없고 10-11 세 여아들 중 25.7%가 임신이나 조기결혼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청년 6 명이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아 작은 학교를 만들고 소액의 학비를 받아 운영하며 구슬땀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나 정부의 지원없이 스스로 작은데서부터 시작한 이 현지인 청년들이 모두 크리스천들이라 더욱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개교시 학생 1 명으로 시작했는데 6 개월이 지나지 않아 110 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오전, 오후반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몇 차례의 교제 후에, 저희 부부는 이 학교를 돕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월 학생들에게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하고 학교 인근에서 환경미화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한국에 있는 몇몇 사모님들이 보내주신 헌금으로 21 일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소개하고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이 작은 학교 교장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초청해 저희 내외와 귀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주셨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부모 중에는 믿지 않는 자와 무슬림들이 있었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길, 진리, 생명되심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매월 1 회씩 방문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위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어린 학생들과의 만남이 교회 주일학교 만큼이나 소중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소개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기니 비사우에서 허락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늘 깨어 기도하도록.
2. 다음 주 27 일에 까뚱고라는 시골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10 시간의 장거리 흙길 여행을 안전하게 다녀올수 있도록.
3. 저희가 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